

말씀의 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브라함과 예배 공동체<창세기 12장 1~9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따라갈 때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입니다. 불려내심<구원하심>을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명분을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 3: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애굽왕 바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출 3:18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등장한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신약에서 115번이나 쓰여진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예크<~로부터> + 칼레오<부르다, 불러내다>의 합성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간판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회중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처럼, 아브라함의 가족들처럼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행위도 역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 18:20절에서,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려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은 거기에 반드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어버린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잃어버린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과 예배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예배의 정신을 함께 공유하고 예배를 통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창 12: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어쩌면 롯은 아내 사라외에는 유일한 피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중들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가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아들처럼 함께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예배도 지켜보았지만 그 예배의 정신을 공유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롯이 예배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신중하게 다음 선택지를 놓고 예배함을 보았으면서도 롯은 소돔땅을 선택할 때 예배하고 묻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축복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롯은 제외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롯이 소돔으로 떠나고 하나님은 즉시 나타나셔서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만 축복의 약속을 다시 분명히 하십니다. 함께 예배하고 예배의 정신을 공유하는 자들이 축복도 함께 공유하고 약속의 믿음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예배의 정신을 공유할 때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하나님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에 물만 와 계시고, 식구나 친구 때문에 와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에 마음을 열고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롯과는 대조적으로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아브라함의 종(이방인)이 진짜 예배의 정신을 공유하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예배공동체가 되어있음을,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간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10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 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11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으러 나을 때였더라 **12**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700km이상 되는 긴 여정을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 와야 하는 특명을 받고 종이 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을 너무 많이 닮아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종의 모습을 통해, '이 자가 바로 가족이다!'라는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는 모습은 그가 예배자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이었던 롯은 축복과 약속에서 제외되었지만, 가

족이 아니었던 종은 축복을 함께 물려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공동체가 되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마음 다해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자들 중에 '참 예배 예쁘게 잘 드린다. 예배 드리면서 저렇게 은혜를 받나? 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릴 만큼 간절할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멀리 사는데 예배 전에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저렇게 집중하고 예배하는가? 저 사람은 참 체면이 많네? 저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도응답도 많네? 등 공동체가운데 여러분이 바라보기에 본 받을만한 예배자가 있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배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정신을 공유하지 않고 예배를 배우지 않으면 믿음은 없고 연조만 쌓이는 묵은 닭 교인이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가야할 길을 선택하는지, 그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롯은 선택에 있어서 그냥 눈에 보이기에 좋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이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얼마나 긴장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싸인을 기다렸는지 그걸 옆에서 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옆에서 보고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섬긴 모습과 19장에 롯이 천사들을 섬긴 모습은 너무도 확연히 다릅니다. 왜 아브라함 옆에서 배우지 못했을까요? 또한 롯은, 예배하고 난 뒤 하나님 방식으로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전쟁 포로가 된 롯을 구출하러 메소보다미아 연합군을 추격해서 그들을 격퇴하고 롯을 구출합니다. 그러면서, 소돔 연합군도 다시 빼앗겼던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 다시 찾게 됩니다. 소돔왕이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해 이 엄청난 전리품들을 아브라함에게 주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 유혹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예배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의 힘입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했을까? 아브라함에게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예배자답게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지 못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창 19:30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31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32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생각과 가치기준이 세상에 물들어 사고방식자체가 다 파괴되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공동체는 몸만 교회에 와서 숫자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 정신, 생각이 예배에 젖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란노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바로 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16. 1. 24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1. 31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히브리서 11:8~10, 창세기 13:14~18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브라함과 예배 공동체 2"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 예배중 헌금시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 드리시길 바랍니다.